

현장시선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여행객을 삼가는 상황이 생긴 것 같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지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그 여파가 제주에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제주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비자입국을 중지한 상태이므로 여행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적잖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소비자가 취소한 여행상품은 항공권, 숙박시설, 관광지 입장권, 관광 안내자 등과 연결돼 있어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적잖은 피해가 발생한다. 우한 지역의 작은 나비의 날개 짓이 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여행취소

지역에도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키는 나비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도 고등학교 동창들과 2월에 함께하기로 계획한 해외여행을 취소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람 간에 전염되는 위험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들은 항공권 취소에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약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을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도 필자가 친구들과 계획한 여행상품은 위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취소가 됐으니 자칫 하루만 늦었어도 많은 위탁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여행을 이미 예약한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알게 된다면 위탁금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국외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여행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외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해지요청 일수에 따라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위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여행 해지요청시 당일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2일전에는 10% 배상, 1일전에는 20% 배상, 당일에는 30% 배상하면 취소가 완성된다. 숙박여행의 경우에는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당일여행 취소기준과 같이 적용된다.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전이나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요구시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탁금을 공제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약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해지요청하는 경우에 많은 위탁금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특약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일반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이 제시돼 있으므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발생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무쪼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잠잠해져 관광지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사설

'선택과 집중' 행사로 코로나 사태 극복하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가 계속 번지는 형국입니다. 내도 관광 객수가 급감하면서 관련업계가 아우성인데 하던 각종 행사도 줄어 취소·연기되면서 지역경제 어려움도 큼니다. 실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제주 입도객은 15만6530명으로 전년 동기 30만4566명에 비해 48.6%(14만8036명)나 감소했고 호텔, 렌터카업체 등 관련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이달 10일 기준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행사 87개가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차원에서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연기·취소하고 나들이를 삼가는 사회분위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사 방안도 지혜롭게 추진돼야 합니다. 현재 도내 확진환자 0명, 격리중 환자 0명인 상황에서 기존 공항만

내도객과 중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방역조치와 정부의 지자체 행사추진 권고지침을 병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지자체 주관 모든 행사에 대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활성화도 고려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시행하도록 권고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주최기관에 대해 보건소와 협조체계 구축 후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철저, 참가자간 밀접 접촉으로 호흡기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 제외, 격리공간 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지역경제를 위해 한라산 탐방예약제 유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유보, 유료 공연주차장 50% 감면 등 조기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정된 각종 행사들은 무조건적 연기·취소를 지양, 철저한 사전 방역조치와 함께 면밀한 검토 후 선별적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열린마당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박정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로 확산됐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지난 달 20일 방역대책반, 27일부터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동해 '심각' 단계 수준으로 대처하면서 도민안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2차 감염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전과 우려도 존재했지만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 등으로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간 차원의 방역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도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2월 4일부터 전 읍·면·동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신종 바이러스 차단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도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산하 2317개 단체(17만8223명)에 대해 감염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손 제대로 씻기 운동' 등 철저한 위생관리에도 적극 나섰다. 또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마스크 대용품을 직접 자체 제작, 지역에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버스정류장·경로당·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방역도 진행 중이다. 연합청년회도 지난 12일 제주도 연합과 서귀포 매일시장에서 예방 캠페인을 개최해 손소독제를 나눠주는 자리를 가졌다. 지역사회 단체 등이 적극 나서서 신종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도내 더 많은 기관·단체와 도민들의 참여를 바라며, 도민 모두가 개인 안전수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 청년실업자 5900여명 추정

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 분석 ○...제주지역 청년실업자가 무려 59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 제주연구원 이종화 책임연구원은 13일 '제주지역 청년취업 현황과 정책 대응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8년 제주지역 청년인구는 약 12만5982명이며, 청년층 실업률을 고려할 때 약 5900명의 청년실업자를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 이 책임연구원은 "제주 더큰내일 센터는 청년인재선발 사업에서 청년의 참여범위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교대기자

의 방에서 라민우 전 실장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 A씨는 "실추된 명예는 원상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 김현석기자 제주소상공인 국민청원 접수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대통령님 제주도 방문과 함께 제주도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접수. 이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1차 산업, 건설업에 이어 관광업까지 무너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도민 모두가 울고 있다"며 "제주 11만5000개 사업장 가운데 70%는 소상공인과 연관되고, 최근 매출은 하루 100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었다"고 토로. 이와 관련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도록 응원해 달라"며 "제주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 백규탁기자

제주해녀 매년 감소, 이러다 명맥 끊긴다

제주해녀는 국내를 넘어 세계의 보물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해녀가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걱정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해녀의 비율이 전체 해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물질을 하는 해녀는 382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3898명)에 비해 78명 감소한 것입니다. 고령화와 질병으로 물질을 포기하거나 사망 등으로 162명이 줄었습니다. 그레도 해녀학교 수료자의 신규 가입과 기존해녀 물질 재개 등으로 84명이 증가했습니다. 제주 해녀수는 2241명(전체의 58.7%)으로 2018년(2269명)보다 28명이 줄었습니다. 서귀포시는 1579명으로 2018년(1629명)보다 50명이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6명,

30~49세 83명, 50~69세 1496명입니다. 나이 든 70세 이상 고령자는 2235명으로 전체 해녀의 58.5%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해졌습니다. 제주해녀는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유네스코가 제주해녀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보전·전승해야 할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해녀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주해녀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물질 도중 고령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물질을 하다 숨진 해녀(40명)의 90%가 고령해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해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아 보전·전승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신규 해녀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사라져가는 제주해녀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고부이공 동구(요셉·향년 10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14일 부인 김경림(여러이) 아들 이용우 며느리 유은영(태자) 김미현(태자) 용림 고은경(태사)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2고단1578 (2013고단599) 업무방해 등 위 피고인 김수용 위 피고인은 업무방해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2. 13. 판사 박준석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보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195 사기 위 피고인 이철희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2. 13. 판사 박준석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